

업무연락

중대재해 사례 전파

최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유사 작업시 안전조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서 깊이 5m 싱크홀 발생...1명 사망

10월 28일 오전 10시 18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공사장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90cm, 세로 2m, 깊이 5m 싱크홀 2시간여 만에 구조...숨진 상태로 발견
싱크홀은 가로 90cm, 세로 2m, 깊이 5m 정도로, 60대 감리단장이 추락함.





■ 1층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떨어져 1명사망

10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 1층에서 형틀(거푸집) 조립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흥토건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 단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출입금지용 로프를 설치하던 중 추락

22.11.4. 7:38경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37번길 25 소재 '하남 미사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7층에서 내부 판넬 설치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단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출입금지용 로프를 설치하던 중 지상 1층 바닥(높이 58m)으로 추락하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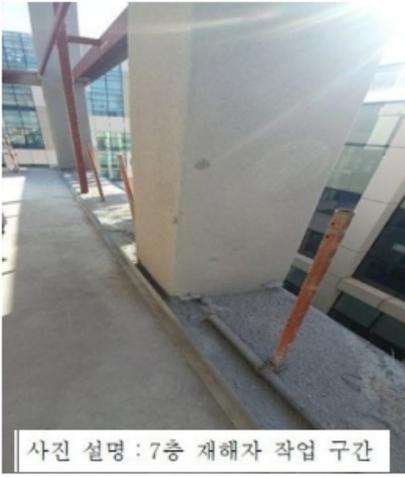


사진 설명 : 7층 재해자 작업 구간



사진 설명 : 추락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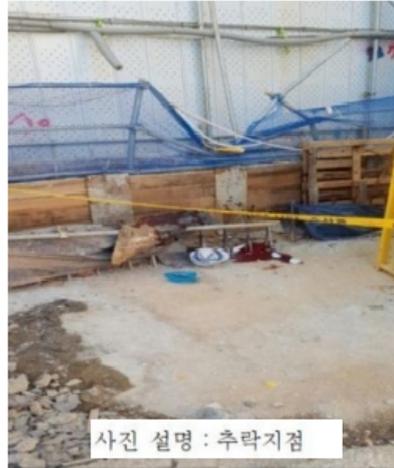


사진 설명 : 추락지점

■ 굴착기 전도 사고로 사망

7일 오후 2시 19분쯤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에 깔린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2층에서 추락 사망

11월 14일 오전 9시 21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공장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5일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